내외뉴스통신

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, 집중호우 대비 농업기반시설물 안전점검 실시

장현호 기자 | 승인 2024.07.18 15:20

도곡저수지 등 관내 저수지를 방문하여 집중호우 및 장마 대비 농업기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.(사진 제공=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)

[밀양=내외뉴스통신] 장현호 기자

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(지사장 김재홍, 이하 “공사”)는 지난 17일(수) 도곡저수지 등 관내 저수지를 방문하여 집중호우 및 장마 대비 농업기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.

공사에서는 집중호우 등 비상시기 대비 저수지 수위조절을 위하여 수문, 사이펀 등 간이방류시설을 활용한 사전방류를 실시하고 저수율 점검 및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
또한, 밀양지사는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및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저수지·배수장 사전 안전조치 및 예찰활동, 긴급동원업체 지원대기,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재정비 실시 등 관내 인명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.

김재홍 지사장은 “지속적으로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저수지 등 시설물 상시 점검과 저수지 수위 관리를 실시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.”고 밝혔다.

janghh6204@hanmail.net

장현호 기자 janghh6204@hanmail.net

저작권자 ©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